

3.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

1. 세시풍속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행해졌던 세시풍속은 경기도에서 행해졌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한국민속대관』(고대 민족문화연구소편), 『한국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 『이천군지』의 「세시풍속편」에 나타난 기록을 토대로, 본 조사단이 확인한 자료를 대비해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다.²⁾

1) 정월

정월은 한 해가 시작되는 달로 옛날부터 많은 행사와 놀이가 있다. 특히 정월 대보름은 새해에 뜨는 첫 번째 滿月이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많은 민속놀이와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식이 벌어졌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청년회와 노인회를 중심으로 사물놀이, 윷놀이 등을 즐기는 정도이다.

① 설빔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서 새로 지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모든 집에서 직접 설빔을 만들어 입었는데, 서민들의 집에서는 어른은 대개 흰 무명옷이었고 아이들은 거기에 검정 물을 들였다. 그러나 요즘은 새로 지어 입기보다는 아이들의 새 옷을 미리 장만하였다가 설날 아침에 입히거나, 깨

2) 세시풍속은 장호원읍 전지역이 거의 같으므로, 특별히 다른 경우를 제외하곤 조사지역의 표시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입을 뿐이다. 장호원에서는 남자 어른들의 경우 전통 한복을 입는 예가 많으며, 양말만 새로이 구입해서 신는 정도이다.

② 차례(茶禮)

정월 초하룻날 아침 종가(宗家)에 모여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에는 주로 떡·고기·술·과일·나물 등을 올렸는데 과일 중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다고 하여 쓰지 않는다. 또한 조상이 술을 마시지 못했을 경우에는 술 대신 냉수로 대체한다. 차례가 다 끝난 후 제사에 쓴 술을 ‘음복주(飮福酒)’라 하여 ‘도소주’를 나누어 마신다. 예전에는 도소주를 집에서 빚어서 썼으나, 지금은 약주나 정종을 쓴다.

③ 세배

차례가 끝난 후, 그 자리에 모인 어른들께 새해 인사를 올리는 절을 세배(歲拜)라 한다. 집안에서의 세배가 끝나면 상을 당한 집에 찾아가 죽은 이를 모신 상청에 조문하고 상주에게 인사한다. 그 다음 동네의 일가 친척과 이웃 어른들에게도 찾아가 세배한다. 이때 아이들에게는 덕담과 함께 약간의 세배돈을 주기도 한다.

집성촌에서는 어른들을 마을회관에 모셔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 세배를 올리기도 했었다.

④ 복조리

섣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서 조리장수들이 “복조리 사세요”라고 외치면 각 가정에서는 일년 동안 필요한 복조리를 산다. 남보다 일찍 사면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고 하며, 산 복조리는 방문에 걸어둔다. 복조리 안에는 쌀이나, 성냥, 돈을 넣어둔다. 쌀을 넣는 이유는 조리가 쌀을 건지듯 만복이 많이 생기라는 뜻이며, 성냥은 불처럼 재산이 늘어나라는 뜻이다. 정월에 건 복조리는 10월 가을고사에 떼어내 쓰는 일이 많지만, 예전의 조리가 낡아 못 쓸 경우에도 떼어내 쓴다.

집안에 들어 온 복조리를 내몰리면 들어왔던 복이 나간다는 믿음을 이용해 어떤 이들은 그믐날 밤 남의 집에 복조리를 던지고 며칠 후 복조리 값을 받으러 다닌다. 복조리는 한 개를 거는 것이 보통이나, 식구가 많은 집에서는 두, 세 개를 건다.

⑤ 어부슴

장호원에서는 “어부슴”이라고 부르며, 근래에도 행해지고 있다. 어부슴은 음력 정월대보름날 그 해의 액막이를 위하여 조밥을 강물에 던져 고기가 먹게 하는 일이다. 『열양세시기』의 상원조에 “깨끗한 종이에 흰밥을 싸서 물에 던지는 것을 어부슴이라 한다”고 단편적인 기록이 보인다.

오남 3리에서는 보름날 새벽에 밥 한 공기를 가지고 청미천으로 가서 가족들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말한 후 밥 세 덩어리씩 버린다. 그리고 빈 사발에 내에서 주워온 세 개의 작은 돌을 담고 집으로 가져온다. 돌은 부뚜막에 놓고 주발로 사흘 동안 덮어놓은 후 오리샘(우물)에 돌을 버린다. 용왕의 도움으로 물가에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년 열 두 달 재수 있게 해달라”고 축원을 한다.

이황 1리에서는 어부슴을 마치고 우물에서 물을 떠온다. “용알뜨기”까지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다.

노담 1리 할머니들에 따르면 어부슴에 쓰일 밥을 따로 했지만 지금은 지은 밥을 부뚜막에 놓았다가 새벽에 가지고 간다고 한다. 어부슴이 정월 보름에 행하는 지라 이날은 모두 아침에 오탁밥을 많이 해서 저녁까지 먹는다. 그래서 저녁에는 찬밥을 먹는지라 따로 밥을 한 것이다. 지금도 행해지고 있으며, 남몰래 새벽에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⑥ 야광귀(夜光鬼)

야광귀는 선달 그믐날 저녁에 내려와서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 중에서 재 발에 맞는 신발이 있으면 신고 달아나며, 그 신발의 임자는 아주 못된 재앙을 만난다고 한다. 그래서 야광귀를 쫓기 위하여 체를 안마당 벽에 바늘과 함께 걸어 놓는다. 야광귀가 키의 구멍을 세다가 새벽 닭 소리에 달아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녁에는 새 신발은 집안에, 헌신은 뒤집어 놓는다.

장호원에서는 “야광귀”라는 명칭에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러나 “달귀(닭) 귀신 오는 날”에 별리는 행위는 야광귀 의식과 같다. 단지 “달귀 귀신 오는 날” 의식은 1월 14일날 행한다.

⑦ 정초(正初)와 십이지신(十二支神)에 대한 풍속

쥐날(上子日); 정월 첫 번째 쥐날에는 쥐불이라 하여 논둑 밭둑에 불을 놓았고, 쥐불싸움도 했다. 그리고 이날 콩을 볶으면서 “쥐 볶아라, 콩 볶아라”고 말한다.

소날(上丑日); 정월 첫 번째 소날은 “소의 생일날”로서 한 해 내내 소가 병나지 말라는 의미에서 콩을 볶아 외양간에 던지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이 날에는 도마질을 하지 않았고, 쇠불이 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쇠고기를 먹지 않고,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소 날 곡식을 집밖으로 퍼내지도 않는다.

호랑이날(上寅日); 정월 첫 번째 맞는 호랑이날에는 아침 일찍 여자가 바깥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음양학에서 “人生於寅”이라 하여 사람은 호랑이의 정기를 받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토끼날(上卯日); 정월 첫 번째 맞는 토끼날에는 여자의 바깥출입을 삼가 하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소변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뱀날(上巳日); 정월 첫 번째 맞는 뱀날에는 머리를 빗으면 집안에 뱀이 성한다고 하여 머리를 빗지 않는다. 휘파람을 불지 않으며, 손톱도 깎지 않는다.

⑧ 입춘(立春)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정월은 새해의 첫 번째 드는 달이고, 입춘은 대체로 정월에 첫 번째 드는 절기이다. 이날에는 모든 행복을 나타내는 글귀를 대문이나 기둥에 써 붙이는데 이러한 풍습은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다. 집안의 대문이나 기둥에는 “立春大吉”, “建陽多慶” 등의 첩문을 써 붙이거나 문에 龍자나 虎자 등을 쓰기도 한다.

⑨ 작은 보름

정월 14일을 “작은 보름”이라고 하여 오곡밥과 갓가지 나물을 해서 이웃과 나누어 먹고 “벼섬 만두”라고 해서 아주 크게 만든 만두를 먹는다. 열 나흘 날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홉 번을 채우는 관습이 있다. 나무를 해도 아홉 짐을 하고, 밥을 먹어도 아홉 끼를 먹는다.

“벼섬 만두”는 만두를 작게 만들어 다시 큰 만두피로 그것들을 넣어 만든다. 이것을 벼섬이라고 생각한다. 즉 벼섬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다. 큰 만두는 국수로 감는다. 국수는 새끼를 뜻한다.

이 날 아침에는 육류와 묵은 김치를 먹지 않는다. 김치나 무를 먹으면 한 해 더위를 먹는다고 하며, 또한 한 해 동안 부정을 탄다는 것이다. 대신 미역국이나 맑은 장국에 오곡밥을 먹는다. 점심 겸 저녁으로 오곡밥을 짓고, 복쌈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나물을 곁들인다. 또, 이날에는 세 집 이상의 밥을 얻어먹어야 한다는 관습이 있어 서로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를 백가반(百家飯)이라 한다. 한 밤중에 부엌에 마련된 밥을 훔쳐먹는 관습도 있었다. 장호원읍에서는 ‘밥서리’라고 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해졌다.

⑩ 대보름날 풍속

㉓ 귀밝이술, 부럼깨기

정월 보름날 이른 새벽에 귀밝이술이라 하여 모두가 술을 조금씩 마시는데 이 술을 마시면 귓병에 걸리지 않고, 귀가 밝아지고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 한다. 또 한 부럼이라 하여 밤·잣·호두 등을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무는데 첫 번 것을 깨물어 안마당에 던지면서 “부럼이요”, “내 부스럼 가져가라” 라고 소리치면 1년 동안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㉔ 더위팔기

정월 보름날 이른 아침에 더위를 판다. 이날 아침 일찍 자기가 점찍어 놓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 상대자가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하고 소리를 친다. 이렇게 더위를 팔면 여름 동안 더위를 먹지 않고 1년 동안 건강하게 지낸다고 한다. 지금도 친구들 간에 행해지기도 한다.

㉕ 달맞이

정월 대보름에 뜨는 만월은 새해의 첫 번째 뜨는 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빨리 마치고 마을에서 달이 잘 보이는 “망월대”로 올라가 달구경을 한다.

망월대에 올라 갈 때는 의관을 정제하고 오른다. 또한 자기의 나이대로 짚으로 끈을 묶은 들깨대를 가져가 그 것에 불을 밝히어 달을 보고 4번 절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빈다. 이황리에서는 조대를 썼다. 조가 많이 달리 듯 오래 살라는 의미이다. 축원 할 때는 “망월이요 망월이요 ×××××”라고 한다. 새해 첫 해 떠오르는

등근 달을 먼저 보면 한 해 운수가 대통한다고 하여 서로 다투어 달을 본다. 아이가 없는 사람은 부부가 같이 축원하기도 하였다. 근래까지 깡통에 불꽃놀이를 하는 것은 이러한 풍습의 유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달구경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마당에서 고추와 목화씨를 태운다. 그러면 악귀가 물러난다고 본다.

㉔ 목서리

정월 보름날 아침에 사람이나 집안의 가축들 목에 복숭아 가지로 목도리를 해서 감는데, 이를 “목서리”라 한다. “목서리”를 하면 가축에게 벌레가 생기지 않아 잘 자란다고 한다.

㉕ 밀보리 털기

정월 열 나흘 날 수수깡으로 조, 보리, 녹두, 콩 등의 곡식 모양으로 만들어서 재간에 꽂아두었다가 보름날 아침 일찍 타작을 하는 흉내를 낸다.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㉖ 용알뜨기

정월 대보름날 밤에 물을 떠오는 것을 “달 떠온다”라고 하고, 정월 보름 새벽에 물을 떠오는 것을 “용알뜨기”라고 말한다.

용알뜨기는 정월의 첫 번째 용날 닭이 울 때를 기다렸다가 서로 앞을 다투어 물을 길어오던 풍속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알을 낳은 우물에서 남보다 먼저 정화수를 길어 밥을 지어먹으면 그해 농사가 잘된다고 믿고 남 먼저 우물물을 길으려고 한다.

㉗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대추나무나 감나무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끼어 놓는 것을 “나무 시집보낸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 해에 과일이 많이 열린다고 한다. 사실은 “나무 시집 보내기”는 가지 사이를 넓혀 주는 일종의 가지치기로서 옛 선인들의 지식을 엿 볼 수 있다.

⑪ 나이떡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는 “나이떡”이라고 해서 온 식구가 송편을 빚어 나이 수대로 먹는 풍습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나이떡”을 먹으면 가내가 무사하고 모든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한편, 이날은 영등할머니가 며느리나 딸을 데리고 내려오는 날로, 그날 비가 오느냐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작, 흉작을 예측한다고 한다. 영등할머니는 2월 1일 세상에 내려와서 20날 하늘로 올라가는데 영등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비가 내려 그 해 풍년이 들고,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불고 그해 흉년이 든다고 한다.

2) 춘절(春節)

① 한식일

한식일은 언제나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잡기 때문에 2월 또는 3월에 들기도 한다. 이 날은 찬밥을 먹는 날로 되어 있는데 중국의 故事에서 유래된 풍습으로 전해진다. 이 날에는 보통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며, 묘의 폐를 다시 입히고 주위에 나무를 심기도 한다.

② 장 담그기

옛날부터 장은 집에서 담가 먹었다. 새봄이 되면 겨우내 뜬 메주를 쪼개어 말리었다가 간장 담그는 원료로 쓴다.

농가에서 장 담그는 일은 입동 전후의 김장하는 일과 함께 큰 일 중의 하나로 3월이 되면 날이 따뜻하고 햇볕을 가장 많이 받는 날을 가린다. 그 중에도 3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말날(午日)에 간장을 담그면 가장 맛이 좋다고 하여 현재까지도 주로 말 날에 간장을 주로 담근다. 일부 지역에서는 닭날(달라고=단맛)과 말날(맛 나라고)에 장을 담근다. 그러나 뱀날에는 뱀이 장을 짚어 먹으면 장맛이 떨어진다고 장을 담그지 않는다.

장 담그는 항아리에는 숯, 대추, 밤, 참깨, 고추 등을 띄우고, 항아리에는 버선본을 붙인다. 숯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밤, 대추는 장이 달라고, 고추는 귀신을 쫓으라는 의미라고 한다. 버선본은 벌레의 접근을 막기 위함이다.

③ 초팔일(初八日)

음력 4월 8일은 석가모니의 탄신 날로 불교를 숭상하는 집안의 사람들은 절을 찾아가 재를 올리고 가족들의 복을 빌며, 저녁에는 신자들이 등을 들고 거리를 줄지어 도는 제등행렬(提燈行列)을 벌이기도 한다.

④ 단오(端午)

음력 5월 5일을 단오, 또는 천중절(天中節), 단양(端陽), 수릿날이라 부르는데, 이 날은 수리치의 싹을 뜯어다 떡을 빻어 먹고, 여자들은 창포로 머리를 감고 그 네뛰기를, 남자들은 씨름을 하며 즐겼다. 창포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 윤이 나고 술이 많아지며 향기롭다.

이 날은 기름떡과 미나리를 먹고 그네를 띄운다. 미나리를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그네를 멀리 뛰면 모기가 물지 않는다고 한다. 그네를 탈 때 “모기 물자”라고 소리 친다.

3) 하절(夏節)

선읍리, 방추리에서는 6월은 “썩은 달”이라고 하여 봉선화 물을 들이지 않는다. 봉선화 물을 들이면 오빠가 해롭다고 한다.

① 유두절

유두절 날을 “유두 할아버지”라고 달리 부르는데, 유두절 날 비가 오면 칠석날도 비가 온다고 한다. 그리고 집안에 기름 냄새를 내야한다고 여겨 기름떡을 해먹는다. 진암리에서는 유두절 날 “물탕골로 물맞이 하러 가자”고 하여 여인네들과 아이들이 놀러갔다. 햇과일과 쌀, 찻불, 술을 가지고 광암폭포로 가서 목욕과 음식을 만들어 그 곳에서 먹었다. 이 날은 여인네들이 목욕하는 날로 남정네들은 광암폭포(지네산)로 갈 수 없었다. 폭포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폭포가 먼저 떨어지는 상탕에서는 마실 물을 받고, 중탕에서는 과일과 쌀을 씻고, 하탕에서는 목욕을 하였다. 여인네들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면 한 해가 건강해진다고 본다. 유두절날 남자들은 “탁족”이라 하여 발만 물에 담갔다.

② 삼복(三伏)

하지를 기점으로 하여 세 번째 드는 경일(庚日)을 초복(初伏), 네 번째 경일(庚日)을 중복(中伏), 입추(立秋) 후 첫 번째 경일(庚日)을 말복(末伏)이라 한다. 삼복(三伏) 동안은 1년 중 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때인 만큼 ‘복다림’이라 하여 시원한 곳을 찾아 개장국이나 닭고기, 떡을 해 먹으며 하루를 즐겁게 놀면서 더위를 이겨냈다.

③ 칠석(七夕)

음력 7월 7일은 칠석(七夕)이라 하여 하늘나라에 있는 견우와 직녀가 1년에 1번씩 오작교(烏鵲橋)를 건너 만나는 날이며, 이날 비가 오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 흘리는 반가운 눈물이라 했다. 이날에는 절에 가거나 밀 부침개(밀전병)를 해서 7개를 먹는다. 그리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④ 백중절

음력 7월 15일을 말하는데 이 날을 백중일(百種日)이라 하기도 한다. 농사일이 대강 끝나 그간 고생한 머슴들에게 돈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루 즐겁게 놀게 한다. 그래서 “머슴 생일날”이라고 하기도 한다. 머슴들은 장호원읍 백중장에서 각종 놀이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겼다고 한다.

백중날을 즈음하여 농의 김매기가 끝나면 남정네들이 논 김매기가 끝났음을 자축하는 “호미씻기”행사를 벌인다. 수렵과 어렵을 하기도 하고, 두레에서 수렵한 돈으로 돼지를 잡기도 한다.

4) 추절(秋節)

① 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로 중추절(中秋節), 가배일(嘉俳日), 한가위라고도 한다. 이 시기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날씨도 쾌청한 때로 예전부터 설날과 함께 가장 큰 명절로 여겨 왔다. 추석날 아침에는 햅쌀로 지은 송편과 햇과일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간다. 또 이날에는 갖가지 민속놀이가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놀이로 거북놀이를 꼽을 수 있다.

② 중구절(重九節)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重陽節)이라 부른다. 이 때는 국화가 한창 만발한 시기라 국화주를 빚고 국화전을 만들어 하루를 즐기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5) 동절(冬節)

① 가을 고사

음력 10월 상달이 되면 햇곡식으로 쌀과 술을 빚어 말 날이나 길일을 택하여 한 해의 추수와 가내의 안녕을 기원하여 성주, 토지신, 조상신에게 고사를 지낸다. 또한 터주나 엽가리를 새로 만들어 모시거나 시루떡을 해서 나누어 먹는다. 지금도 할머니들이 시루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김장

김장은 초겨울에 벌어지는 가정의 큰 행사이다. 김장을 담그는 시기는 입동(立冬)을 전후하여 음력 10월 말경에 주로 담근다. 장호원에서는 김치를 “짬지”라고 부르고, 보통 “김치광”에 보관한다. “김치광”은 땅을 파서 김치항아리를 묻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짬을 씌운 것이다. 이밖에도 땅을 깊숙이 파서 시멘트로 벽을 칠하고 돌을 올려 지붕을 만든 것도 있다. 그 모습은 강원도의 움과 같다.

③ 동지(冬至)

동지는 24절기의 하나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 이날은 붉은 팔죽을 끓여 먹을 뿐만 아니라 문에 바르거나 집 주위에 뿌린다. 붉은팥이 잡귀와 액을 물리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사당에 팔죽으로 제를 올리기도 한다.

애동지는 떡, 노동지는 팔죽을 먹고, 노동지면 노인이, 애동지면 아이가 많이 죽는다고 한다. 동지가 초승이면 애동지, 중순이면 중동지, 말일이면 노동지라고 부른다.

④ 밤새우기

선달 그믐 날 밤에는 수세(守歲)라고 하여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혀 놓고 잠을 자지 않는 풍습이 있다. 이 날 잠이 들면 눈썹이 센다고 하며, 잠이 든 사람에게는

눈썹에 밀가루를 발라 눈썹이 세었다고 놀려주기도 한다.

2.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놀이의 성격에 따라 두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수십 명이 편을 갈라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놀이와 집단 놀이의 한계를 엄밀히 긋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여기서는 놀이의 성질상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가능한 놀이만을 집단 놀이에 넣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개인 놀이에 넣었다.

1) 개인 놀이

(1) 널뛰기

음력 정월 초순, 단오절, 백중일, 추석날 등에 젊은 여자들이 즐기는 유희로,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치맛자락을 펼럭이며 널을 뛰는 모습은 이때면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큰 널판자 하나면 어느 장소에서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마을에서 널뛰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장호원읍에서도 널뛰기는 일반적인 놀이였다.

(2) 연날리기

연날리기 놀이는 대체로 음력 12월쯤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월 보름까지 하는데, 요즈음은 겨울철이면 아무 때나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의 종류도 생김새에 따라 가지각색이고 연을 올리는 기술도 다양하다. 특히 연싸움은 서로 연줄을 걸고 당겼다 늦추었다 하며 어느 연줄이 질긴 지를 시험하는 놀이로 연줄이 끊긴 쪽이 지게 된다. 상대방의 연줄을 끊기 위하여 줄에 사기를 이용해 풀칠을 한다. 요즈음도 겨울철에 어린아이들이 즐겨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액연 띄운다”하여 연에다厄자 하나를 써서 날려보냈다. 이때 얼레에 감겨 있던 실을 죄다 풀고 얼레대 밑에 있는 선을 끊어서 멀리 보낸다. 보름이 지나서도 연을 날리는 이가 있으면 ‘고리백장’이라고 놀리고 욕을 한다. 연은 멀리 나갈수록 집으로부터 액운이 멀리 갔다고 믿는다.

(3) 윷놀이

윷놀이는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사이에 많이 노는데, 겨울철이면 흔히 볼 수 있다. 장호원읍에서도 마을 단위의 척사대회가 청년회를 주축으로 열리고 있으며, 우승한 자에게는 농기구, 자전거와 같은 부상을 주기도 한다.

이황 1리에서는 중년층을 중심으로 겨울철에 윷놀이가 행해지고 있다. 그 방법은 2명이 한 팀을 이루고, 사선에 서서 3-4미터 떨어진 원에 윷을 던지는 것이다. 윷가락이 원 밖으로 떨어지면 낙이 되는 것이다. 오남 2리에서도 노인회관의 노인들이 내기 윷놀이를 하며, 풍계 3리는 4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월 보름에 반마다 대표를 뽑아 반 대항을 하였다. 이기는 반에게는 농기구 등을 선물로 주었다.

윷놀이는 가족 단위로 벌여지기도 한다. 설날 가족이 한 팀을 이루고 윷놀이를 한다. 가족이 많은 경우는 예선전을 치른다.

<사진 1:41>

(4) 자치기

동네 마당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모여 하는 놀이로서, 어미 막대와 새끼 막대를 가지고서 논다. 막대기를 자(尺)로 삼아서 거리를 계산한다 하여 “자치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구멍자치기·머리자치기·달리기·자치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아이들을 위한 각종 놀이 기구의 개발과 함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5) 팽이와 제기차기

구슬치기, 딱지치기와 함께 남자어린이들의 대표적인 놀이였다. 팽이는 둥근 통나무를 끝이 뾰족하게 깎아 위 부분을 잘라내어 만들었고, 제기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동전을 질긴 종이로 싸서 만들었다. 요즈음은 상품화된 팽이와 제기도 나오고 있으나 역시 다양해진 놀이기구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다.

(6) 그네

널뛰기와 함께 부녀자들의 대표적인 놀이이다. 단오절, 백중 때 그네를 뛰는 풍습이 있으며, 마을에 따라서 그네 타기 대회가 열렸다고 하나 지금은 없어졌다. 지금은 동리마다 고목에 줄을 매고 아이들이 어느 때나 즐길 수 있는 일반 놀이로 인식되고 있다. 정기적인 것은 아니나, ‘이천시민의 날’에 동리별 그네뛰기를 행하고 있다.

(7) 화투

화투는 우리 고유의 놀이가 아니고 일본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개 정월 명절이면 집집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여 가벼운 내기를 걸고 화투 놀이를 즐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옛날에는 투전이나 골패 따위가 화투의 대용으로 성행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화투놀이는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보통 음료수나 담배, 음식내기를 걸고 한다.

(8) 엇치기

깨엇과 같은 가래엇의 중간을 끊어서 엇 구멍이 크게 뚫린 쪽이 이기는 내기이며, 대개 겨울철이면 남자들 사이에 엇목판을 두고 벌어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9) 돈치기

동전을 땅에 던져 놓고 이것을 다른 동전으로 던져 맞춘 사람이 따먹는 놀이이다. 돈을 바위에 부딪쳐 멀리 나가는 쪽이 이기는 놀이도 있다. 지금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가끔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10) 씨름

씨름은 우리 나라의 어디에서나 성행하는 놀이이다. 추석이나 단오, 백중 때 장정은 장정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의 씨름판이 벌어지기도 하며, 동네 대항, 면 대항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아이들의 씨름을 “애기 씨름”이라고 따로 부른다.

백중날 장호원 시장에서는 씨름대회가 열렸다. 이 씨름대회는 길면 보름까지도 벌렸다고 한다. 참가하는 선수들은 장호원뿐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지역의 사람들도 참가했다. 보통 나이는 15-16살 정도이고, 승부는 단 판으로 끝난다. 승리한 자는 주먹을 쥐고 씨름판을 한 바퀴 돌곤 했다. 우승자에게는 황소를 주었고 등 수 안에 들은 선수는 광목, 석유 등을 상품으로 받았다. 이 씨름이 없어진지는 60년이 넘었으나 당시에 자주 우승한 강원도의 김장사는 알려져 있다.

(11) 풀각시 놀이

여자아이들이 들풀을 꺾어 신랑·각시를 만들어 사람처럼 머리를 땡기도 하고, 절을 시키는 등 요즈음 아이들의 인형놀이와 같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12) 다리세기

주로 여자아이들이 하는 놀이로 둘이서 마주보고 하거나, 여럿이 양쪽으로 마주 보고 앉아 서로 다리와 다리 사이에 다리를 뻗는다. 이렇게 한 다음 “한알대 ① 두알대 ② 삼사 ③ 나그네 ④ 영낭 ⑤ 거지 ⑥ 팔대 ⑦ 장군 ⑧ 구두레 ⑨ 뽕 ⑩ 똥기 ⑪ 뽕”이라는 다리세기 노래를 불러 노래의 제일 끝마디인 “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리를 오므린다. 제일 먼저 오므리게 된 사람이 이기고 제일 나중에야 세기가 끝난 사람이 그 판에서 꼴찌가 되는데 맨 나중에 다리 하나가 남았을 경우에는 방바닥과 다리를 번갈아 센다. 그리하여 “뽕”이 다리에 가 닿으면 꼴찌지만, 뽕이 방바닥에 닿는 차례이면 꼴찌 중에서도 꼴찌이어서 이긴 사람들의 심부름을 도맡아서 해야 된다. 각 지역마다 이때 부르는 유희요가 약간씩 다르다.

(13) 줄넘기놀이

짧은 줄을 혼자 몇 번 넘는가에 따라 승부를 겨루기도 하고, 긴줄을 여럿이 두 편으로 갈라서 하기도 한다. 여럿이 모여 줄넘기를 할 때 처음에는 “김서방 들어 오세요. 들어와서 인사합시다~”라고 하며 줄을 넘는다. 혼자 들어와서 할 경우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등의 노래에 따라 행동을 따라 한다. 줄을 넘는 사람이 줄에 걸리지 않으면 이기는 놀이이다. 줄을 넘으면서 각가지 재주를 보이기도 한다. 난이도에 따라 돌아가며 하는데, 맨 마지막 단계는 줄을 돌리는 쪽이 팔을 쭉 펴서 높게 하여 돌린다. 이때 줄을 무사히 넘으면 “만세” 하며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기는 것이다.

(14) 막대못치기

길이 한 자 정도로 막대기를 뾰족하게 깎아서 진흙이나 갯벌 땅에 그 막대기를 던져서 박으며 노는 놀이로 각각 5~6개씩 준비해서 앞사람이 박은 나무에 뒷사람이 던져서 박힌 나무를 쓰러뜨리면 막대를 빼앗고 뒷사람 막대기가 땅에 박히지 않으면 도리어 빼앗긴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쇠못치기”로 변해지기도 하였다.

쇠뿔을 땅에 던져서 꽃아 나가면서 각자의 영토를 넓히는 놀이도 있다.

(15) 장치기

소나무 옹이를 공처럼 둥글게 하고, 크기는 주먹만하게 깎아서 마을 사람들끼리 혹은 자기들끼리 편을 나눈다. 긴 막대기로 나무 공을 쳐서 상대방 쪽으로 치는 놀이이다.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세 가지 종류이다. 첫째는 얼음판에서 겨울에 썰매를 타면서 장치기 놀이를 하는 것으로 지금의 아이스하키와 비슷한 놀이이다. 둘째는 산등성이에 올라가 누가 멀리 치는가 내기하는 것으로 요즈음의 골프와 비슷한 놀이인 켄이다. 셋째는 술방울을 막대 끝에 꿰고 발바닥에 막대기를 세게 부딪혀서 멀리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16) 춘향각시놀이

정월에 여자아이들이 방에 모여서 놀던 놀이이다. 방안에 둘러앉은 다음, 술래를 정해 가운데 앉히고 손을 합장한 채 눈을 감게 한다. 다른 아이들은 소리내어 다음과 같은 노래를 한다. 춘향각씨 놀이에서도 부르는 노래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³⁾

“나마간 춘향아씨\ 성은 김가요(술래의 성을 부름)\ 생일은 사월초파일(술래의 생일)\ 이도령을 만나려면\ 정기정기 내리시오\ 설설 내리시오 설설 내리시오”

“춘향아씨 생일은 사월초파일\ 정기타고 정기정기 내리시오\ 설설 내리시오\ 정기타고 정기정기 내리시오”

술래가 신(神)이 내릴 때까지 이 노래를 반복해 부른다. 그러면 술래는 곁 할 때 신장대를 잡은 것처럼 합장한 손을 흔들며 일어서서 춤을 추기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한다. 신명이 나서 마치 무당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술래가 기절한 적도 있다고 한다. 장호원에서는 춘향각시 놀이가 널리 분포되어 있었으며, 사설도 거의 비슷하였다.

(17) 종지놀이

3) 춘향각씨 놀이 때 부르는 유희요는 민요편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정월 명절 때 여자아이들 여럿이 방에 모여서 종지를 갖고 놀던 놀이이다. 여럿이 동그랗게 앉은 다음, 술래를 정해 가운데 앉히고 눈을 감게 한다. 다른 아이들은 동요를 합창하면서 책상다리를 한 무릎 밑으로 종지를 돌리다가 노래를 멈추면서 누군가의 다리 밑에 숨긴다. 그러면 술래가 눈을 뜨고 누가 종지를 감췄는지 알아 맞춘다. 술래가 맞추면 감췄던 사람이 술래가 되고, 못 맞히면 다시 술래를 한다. 세 번이나 술래가 되면 심부름이나 노래를 시킨다.

이와 반대로 술래가 치마 속에 종지를 감추고 둘러앉은 사람들 앞이나 뒤를 돌다가 몰래 누군가의 밑에 살며시 집어넣는다고 한다. 술래가 한바퀴 돌아올 때까지도 알아채지 못하면 그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된다. 지금의 수건돌리기와 같은 양상이다.

(18) 수박치기(손뽕치기)

수박치기는 수박놀이·손뽕치기라고도 부른다. 두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노래의 박자에 맞추어 손 벽을 치며 노는 놀이이다. 두 명이 할 때는 손을 마주 잡고 아래위로 흔들면서 시작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췌췌췌 췌췌췌 \ 저기 가는 저 기러기\ 엽서 한 장 췌 주세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두 장 말고 석 장이요\ 석 장 말고 넉 장이요\ 구리 구리\ 짱깨 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정해진 벌을 받게 된다.

여자아이들 여럿이 방에 모여서 마주 앉거나, 뽕 둘러앉아서 손바닥을 마주치며 하기도 한다. 약속한 동작을 어겼거나 노래의 박자에 울동을 맞추지 못하면 진 것으로 된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시늉을 하면서 따라 하면서 손바닥을 부딪히기도 한다. 손의 모양새와 노래도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지며 전래되던 놀이인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빙고게임이 이런 유형이다.

(19) 숨박꼭질(술래잡기)

술래가 된 아이가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놀이이다. 술래가 일정한 숫자를 셀 동안 모두 숨는다. 이때 술래가 찾기 전에 먼저 달려나와 진에 손이나 발을 대면서 “진”이라고 외치면 “죽지” 않는다. 술래에게 발견되어 이미 “죽은”사람은 술래의 움직임을 보면서 숨은 아이들에게 접근해 간다는 것을 노래로써 알린다. 장호원에서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술래가 간다”고 외친다.

(20) 고누

고누는 땅바닥이나 종이에 말판을 그리고 돌맹이나 나무토막 등으로 말을 삼아 약속된 규정에 따라 승부를 겨루는 놀이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잡아 먹거나 상대방의 집을 먼저 차지하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고누란 말의 어원은 아직 알려진 바 없고, 장호원에서는 “고누 뛰기”라고 부른다.

장호원 지역에서 놀은 고누는 호박고누로서 말판 위에 양편이 각기 말 4개를 놓고 두어간다. 상대방의 말을 따내지 않고, 서로의 말이 한 칸씩 움직이다가 한 편의 길이 막혀 더 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개 말은 뒤로 물러설 수 없으며, 앞으로 또는 옆으로 이동할 수 있다.

(21) 땀치기

쇠를 엮은 모양으로 만든 후 벽에 부딪쳐 멀리 나가면 이기는 것이다. 쇠 대신에 동전을 가지고서 놀기도 하였다.

2) 집단 놀이

(1)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우리 나라 전역 거의 어디서나 볼 수 있던 집단 민속놀이 중 하나로서, 장호원의 줄다리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장호원의 줄다리기는 암줄과 숫줄로 이루어진 쌍가닥 줄이다.

장호원 노들(노탑리)에서는 장호원과 충청도 강곡면 사이에 줄다리를 벌였다. 경기도와 충청도 사이에 벌어진 경기가 그 열기는 어마어마 했다고 한다. 암줄과 숫줄의 길이는 각각 150미터이고, 인원 제한과 남녀 구분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 지역이 암줄과 숫줄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시험에서 강곡면 사람들이 이겼다고 한다. 이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 이유가 강곡면 사람들의 줄 속에 칩줄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줄의 결줄을 “다닥줄”, 두 줄을 연결하는 통나무를 “멍에목”이라고 부른다. 줄다리가 끝나면 그 줄은 불을 놓아 두 지역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다고 한다. 이 줄다리기 대회는 80년 전에 사라졌다고 한다.

풍계 3리에서는 암줄과 솥줄을 갈라서 마을 자체내에서 놀았다. 암줄은 여자아이와 아이들이, 솥줄은 남자들이 당긴다. 70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즐겨 놀았다. 줄은 “용머리”라고 부르며, 한 줄의 길이가 20미터 정도이다. 마을의 줄이 다 만들어지면 마을 한바퀴를 돌며, 여자들이 줄을 넘어가는 것을 부정하다고 본다. 여자를 부정하다고 보는 일은 아침에 여자를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경우에도 그러하며, 이때는 땅에 침을 뱉는다고 한다. 줄다리기는 망월을 구경하고 나서 밤에 벌어지며, 줄은 태워서 거름으로 쓴다.

이황 1리에서도 줄다리기를 하였다. 집집마다 집을 수렴한 후 암줄은 아랫골, 솥줄은 우골에서 만들고 편을 나누어 시합을 하였다. 줄이 만들어지면 줄다리기 하러 나오라는 뜻으로 줄을 가지고 마을 한 바퀴를 돈다. 경기에서 인원 제한이 없고, 끝나면 줄은 잘라서 팔기도 하였고 거름을 내는데 썼다.

나래 2리에서도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갈라서 액막이를 한다고 줄다리기를 하였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은 나래천 가장자리에 두어 홍수 때 개울을 넘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1975년까지 이 놀이를 즐겼다. 나래 1리에서도 줄다리기를 할 때 여자를 앞쪽에 놓고 하였다. 1960년대부터 놀지 않았다.

진암 1리에서는 16년 전까지 줄을 당겼다. 아랫말과 웃말이 서로 암, 솥줄을 바꾸어가면서 줄을 만들고 당겼다.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여겨 일부러 져주기도 하였다. 줄의 길이는 20미터에 이르며, 줄 당기가 끝나면 그 줄을 썰어 외양간에 깔거나 거름으로 썼다. 줄은 각 집에서 수렴하여 만들며, 일주일이 걸려야 하나의 줄이 완성된다.

(2) 거북놀이

거북놀이는 8월 한가윗날 밤 달빛 아래서 연희되는 세시풍습의 민속놀이이다. 거북놀이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널리 연희되다가 사라졌는데, 1970년대 초에 이천시에서 대월면 거북놀이를 재현하여 공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정착하게 되었다. 장호원에서도 해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널리 성행하였으나, 지금은 70이상의 노인의 뇌리에만 남아 있다.

거북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숫잎으로 거북이 모양을 만들고, 거북이에 들어갈 두 사람도 수숫잎으로 분장한다. 한 사람이 거북이의 머리쪽으로 들어가고, 뒷 사람은 허리를 숙여 앞사람 허리를 잡는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을이나

집의 우물, 대문, 부엌에서 춤판을 벌인다. 이때 상채잡이가 축원을 하고 농악대가 연주를 한다. 이렇게 그들이 놀아주면 주인은 답례로 술과 떡 등을 대접하며, 부잣집에서는 자청해서 쌀 한말을 주고 자기네 집에 와서 축원해 줄 것을 바란다.

이천지방의 거북놀이⁴⁾는 경기지방의 무속이 지닌 굿의 방식과 농악이 한데 어울어진 집단놀이로써 연희된다. 그 목적도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부락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을 비는 제의(祭儀)의 성격을 지니며, 놀이를 통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거둔 전곡은 부락 전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 거북놀이의 구성은 ① 깃대잡이(농기·영가·용기), ② 거북이와 질라아비, ③ 농악대, ④ 양반·머슴·여중, ⑤ 기타로 이루어지며, 내용은 ① 길놀이, ② 장승굿, ③ 우물굿, ④ 마을판굿, ⑤ 문굿, ⑥ 터주굿, ⑦ 조왕굿, ⑧ 대청굿, ⑨ 마당놀이로 되어 있다.

(3) 두레놀이

두레는 농촌에서 공동 작업을 하는 수단으로 수용되어 왔으나, 다른 민속놀이와 함께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 놀이는 한 동네 장정 모두가 두레꾼이 되며, 「農者天下之大本」이라 쓴 농기(農旗)를 앞세우고, 팽가리쟁이, 북쟁이, 장구쟁이, 각각 한 명과 북고쟁이 5명 등 5개악기 9명으로 이루어진 두레패 농악단이 뒤 따르게 된다.

근래에는 노인이 중심이 되어 8월 보름, 음력 정월 초하루와 보름날 같은 명절이나 동네 공동이익을 위한 행사 때 두레패를 구성하여 즐겁게 논다. 두레놀이는 길놀이, 지신밟기 등과 어울어져 행해지며, 각 집마다 방문하여 축원해주기도 한다.

(4) 농기싸움

농기싸움은 각 마을의 농악대가 서로 상대 마을의 농악대에게 농기세배를 재촉하다가 드디어는 단합된 힘으로 싸워 상대방의 농기를 빼앗으면 이기게 되는 것이다. 농기는 형님기와 아우기 두 개가 있으며, 대나무 깃대 위에는 팽털과 방물을 달은 “팽장목”을 달아 둔다. 농기싸움을 할 때는 농악패들에 의해 팽과리·북·

4) 거북놀이는 이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정착되었을 뿐아니라, 전체 공연과정이 고증되어 학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천군지』(pp.835-858) 민속놀이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장구·피리 등 사물을 연주하며, 팽과리는 형님 팽과리, 아우 팽과리 두 개로 나누어진다.

사물을 연주하는 농악대는 농기에 정중히 절을 한 다음에 길잡이가 되어 연주하며 길을 이끈다. 마을 구석을 누비고 다니다가 논으로 향하는데, 논길을 지나타 지역 농기와 마주치면 서로 길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논쟁하다가 결국은 싸움이 벌어진다. 농기 싸움을 하고자 할 때는 “삐병 삐병 뽕뽕” 곳거리 장단으로 북을 쳐서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면, 상대방도 싸우고자 할 의사가 있으면 똑같은 신호를 되돌려 준다. 농기싸움은 깃대 위의 썰털(썰에 장목)을 뺄는 것이고, 단판으로 승부를 결정짓는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농기싸움을 볼 수 있었으며, 싸움에 진 마을은 이긴 팀 마을의 농기를 만나면 기를 숙여 기세배를 하였다.

(5) 쥐불싸움

정월 보름날 행하던 민속놀이로 개울을 중심으로 아래, 윗동네가 서로 편을 나눈다. “이리 건너와라”라고 상대방에게 소리지르며 돌을 던지고 불을 질러 논·밭을 태운다. 때로는 큰 싸움이 벌어져 낭패를 본 사례도 많다고 한다. 쥐불싸움의 본래 의미는 해충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사일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며, 불을 놓 때 “쥐불이요, 쥐불이요” 아이들이 소리친다.

쥐불을 놓는 것은 논에 벌레가 죽고 새 풀이 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논둑에 풀이 자라 논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

(6) 재도둑놀이

재도둑놀이는 일종의 상여(喪輿)놀이인 셈이다. 죽은 이가 저승으로 가기 전날 상여꾼이 빈 상여를 메고 풍악과 노래를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민속놀이이다. 호상(好喪) 때만 재도둑놀이를 한다. 본 조사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호원 전 지역에서 「재도둑놀이」가 행하여졌고,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충청도 지역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충청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재도둑놀이는 전라도 신안 일대의 다도해에는 “밤달애”라고 하고, 경북지역에서는 “대돋음”이나 “빈 상여놀이”, 충북 지역에서는 “잿떨이”나 “땃떨이”, 충남 지역에서는 “상여흘리기”라고 하여, 그 명칭이나 규모, 놀이방식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출상 전날 놀이를 한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재도둑놀

이가 없는 반면, 장호원 지역에서 보이는 것은 충청북도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재도듬놀이는 호상인 경우에만 행해지고, 발인 전날 빈 상여를 메고 친척집을 방문하며, 이때 친척집에서는 제사상을 차려 놓고 맞는다고 한다. 보통 술, 담배를 대접한다. 이천시의 재도듬놀이가 원형에서 많이 변형된 것이지만, 잔존 형태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7) 채표

채표놀이는 연대산을 중심으로 5·16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채표는 옛날 중국에서 행하던 복표의 일종으로 오늘날 복권과 비슷하다. 놀이의 구성원들을 보면 주상(主上)은 물주가 되고, 도통수(道通手)는 그 날의 투자 상황을 정리 관리하여 물주를 도와주고, 통수(通手)는 물주와 입산자의 중간 연락책을 맡는다.

놀이방법은 사람의 인체 36곳에 각각의 문구를 부여한 인화상이 그려져 있는 통표를 기준으로 삼아 노는 놀이다. 즉 입산자들이 해몽(解夢) 후에 꿈과 일치하는 내용을 통표에 표기된 36문 중에서 선택한 문구를 복지(福紙)에 정성껏 기록하여 통수에게 돈과 함께 전달하면 통수는 입산자들로부터 받은 복지 내용을 창호지에 기록하여 묶는다. 도통수가 그 날의 당첨을 발표하면 당첨된 입산자들은 금액의 30배를 받았다. 도통수는 주상과 입산자로부터 1할의 돈을 수고비로 받는다.

채표꾼들은 꿈을 꾸려고 노력한다. 만약 자신이 꿈을 꾸지 않으면 가족의 꿈을 물어보아 그 날 투자할 곳을 선택한다. 꿈속에서만 물주가 써 놓은 글자를 맞출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채표꾼들에게 꿈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일부는 꿈을 꾸기 위하여 밤마다 화선지에 사람 형상을 그려놓고 그 위에 36문을 써 놓았다. 그런 다음 식칼을 확확 던지며 천지신명께 꿈을 주실 것을 기원하였다. 꿈에 빛나는 두 눈은 光明, 입술은 志得, 이마는 경제, 가슴은 정순, 두발은 필득 등등이다. 나래리의 김씨는 꿈에 지팡이로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는 것을 꾸어 지팡이, 머리, 피에 해당하는 문구에 돈을 걸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 돈을 땅에 감추고 1년 동안 편하게 썼다고 한다.

채표판이 벌어지는 날은 손이 없는 홀수 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위의

경비가 삼엄하여 그 날은 일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매일 벌리는 달도 있었다고 한다. 채표는 바쁜 여름 농사철을 제외하고 매번 열렸다. 통수에 의하여 날씨가 알려졌고, 입산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표가 벌어지는 장소에는 경비를 세웠다. 채표 역시 놀음이라 도통수와 채표꾼 간에 문구를 짜고 바꾸는 행위도 빈번하였으며, 들킨 사람들은 다시는 그 놀음판에 걸 수 없었다고 한다.

3) 농사점(農事占)과 기우제

한 해 농사가 풍년이나, 흉년이나 라는 문제는 농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로서, 농민들은 새해에 주위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농사점을 본다. 특히 우리네 농사가 천수답으로서 하늘의 비에 많이 의존하였기에 가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그 해의 풍년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호원 지역에서는 정월 14일 날 수수깡으로 보리, 수수처럼 만들어서 재간에 꽂아 두었다가 그 이튿날 부지깥이로 터는 흉내를 낸다. 그러면 올 해 풍년이 든다고 본다. 이러한 풍습은 해방 후에 사라졌다. 또한 정월 보름에는 타작할 때 쓰는 농기구를 지게에 얹혀 놓고 대문에 세워둔 후 그 다음 날 집안으로 가져온다. 타작할 곡식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음력 정월 14일 저녁에 수수깡을 반으로 쪼개어 그 안에 콩 또는 곡식알을 평년에는 12개, 윤년에는 13개를 넣고 짚이나 실로 묶어 물동이나 우물 속에 집어 넣는다. 다음날인 대보름날 새벽에 그것을 꺼내어 실을 풀고 콩의 불은 상태를 보아 그 달의 수해 및 한해, 농작물의 풍흉년을 점친다. 이것을 “달불이”, 또는 “달불금”이라고 한다. 5월의 콩이 불었으면 5월에 비가 내려서 모심기에 알맞고, 7월의 콩이 불지 않았으면 7월에 날씨가 가물어 흉년이 든다고 믿는다.

2월 6일은 “죤생이 날”이라고 한다. 이 날은 송편을 해먹는데 달과 죤생이별이 가까우면 흉년, 멀리 떨어지면 풍년이 든다고 본다. 가까운 것은 밥을 얻어먹으려고 불은 것이고 멀리 떨어진 것은 배부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 달은 엄마, 죤생이는 아이들로 비유한다.

정월 대보름 날 소에게 나물과 밥을 주어, 밥을 먹으면 풍년, 나물을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본다. 소가 농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앞날을 정확히 예언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망월 구경을 할 때 달의 모양을 보고 풍년 점을 치기도 했다. 달이 뿌여면 비가 많이 오고, 붉으면 가뭄이 든다고 본다.

장호원 지역에서 마을 전체로 이루어진 기우제는 찾을 수 없다. 심지어 우물고 사도 지내지 않았다. 장호원 지역이 배형국이라 우물이 적은 관계로 우물고사를 지내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자점보는 물량이 풍부한지라 아무리 가물어도 자점보 주위의 논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기우제로는 주부들이 키를 가지고 개울물을 키질하는 것이 있고, 대서 3리의 경우는 보물이 묻혀있다는 장자터에 땅을 파고 술을 머리에 얹고 그 위로 물을 뿌려 비 내리는 모습을 재연했다. 대서리 이외에 이천 지역 일대의 사람들이 가뭄이 들었다고 생각되면 장자터에 와서 기우제를 지냈다. 혹시 보물을 깨러 오는 것이니 마을에서 막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비가 오면 그들도 좋지만 자기 마을에도 좋은지라 막지 않았다고 한다. 장자터 기우제는 보물을 파내는 나쁜 일을 하면 신이 벌을 주기 위해 비를 뿌릴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선행을 하면 신이 감동하여 비를 뿌릴 것이라는 믿음과 반대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바위에 개의 피를 바르면 신이 불길하다고 여겨 비를 뿌릴 것이라는 믿음과 비슷한 유형이다.

“미친년이 발광하면 비가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진암리에서도 술을 이고 기우제를 지냈다. 백죽산 무량사 위쪽의 광암폭포에서 훌치마를 입은 늙은 할매가 술을 이고 춤을 추면 구경하는 사람들은 바가지로 물을 뿌렸다고 한다. 본래 술을 든 이는 벌거벗고 술을 들어야 하나 지원하는 자를 찾기 어려워져 불가능하며, 술을 든 사람에게 술을 많이 먹여 수치감을 없앴다. 벌거벗고 춤을 추면 신이 불결하다고 여겨 비를 내릴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원한 것이다. 마을에서 성기가 가장 큰 사람이 쟁기갈이를 함으로써 비를 기다리는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1938년 축문을 외우고 제를 지냈다고 하나 이것은 민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진 것이라고 한다.

4) 동제(同祭)

동제의 명칭은 대개 ‘산제(山祭)’ ‘산신제(山神祭)’로 불렸으며, 제사를 지내는 시기는 차이가 있었으나, 준비과정이나 형식·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하였다. 장호

원 지역에서 동제는 사라진 지 오래 되었고,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오남 3리 뒷산거리에는 성황당 터가 남아 있다. 35년 전부터 성황제를 지내지 않는다. 성황제는 무당이 주축이 되어 지냈다. 이황 1리에도 산신당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전체에서 섬겼으나 70년 전부터 산신제를 지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매달 초하루, 보름날 찾아가서 정성을 드리기도 했다. 신체는 없었지만 산신당 건물까지 있었지만 55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씨의 고모님이 마지막까지 산신당 제를 지냈으나 후에 인근 절의 산신당으로 신을 옮겨갔다고 한다.

선읍 2리에서도 성황당에서 해방 전에 군수가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당시 소를 잡고 하였으나 일반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고 관가 사람만 참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